

행위자의 화(火)가 한국 대학생의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조 자 의[†]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은 주로 인지적 발달과 도덕적 정서를 중심으로 기존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토대로 정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행위자의 화가 사건판단과 행위자 평가를 관대하게 하고 판단자의 정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양한 도덕적 영역에서 ‘화’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정서 처리는 피험자 간 변인으로 다양한 도덕적 영역은 피험자 내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행위자가 화가 나 있었다는 점이 판단자로 하여금 사건의 도덕적 허용성과 일반성을 높게 평가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인 관계적 윤리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행위자가 화가 났다는 점은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관대하게 하였다.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평가에서 사건 판단과 동일하게 대인관계 윤리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자가 화가 난 상태라는 점은 모든 영역에서 판단자의 공감을 높였고, 행위자에 대한 화를 낮췄다. 행위자의 화와 판단자의 도덕적 정서인 화의 상관 분석 결과 부모에게 욕한 행위만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부모에게 욕한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의 대상에 대한 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영역과 달리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도덕적 판단, 도덕적 정서, 한국인의 화(火)

[†] 교신저자 : 조자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E-mail : wkdm1@korea.ac.kr

“찾김에 방화”, “찾김 이혼”, “상사 질책에 찾김결근” 등 화로 인해 일어난 사건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찾김에 그랬다” 라는 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쉽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일탈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 ‘찾김’이란 말은 ‘찾김에 서방질 한다’라는 말에서 현시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통 한국 사회에서도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서방질은 절대 금기인데도 불구하고 ‘찾김에 서방질’이란 말은 어느 경우에도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화가 났다 하면 냉큼 저지른 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열규, 2004). Stearns(1995)는 ‘화’의 표현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화’란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구인지, 사적인 장소인지 공적인 장소인지, 잘못된 행위의 크기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표현되는 정서인 것이다. 화를 낸 이유가 통용되는 인과적 맥락에 맞는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비교적 이해하려 하고, 또 자신도 그러한 식으로 이해받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선 행위자-관찰자 편향 이론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기보다는 외부 상황에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Jones & Nisbett, 1972). 덧붙여 동아시아인들은 행동에 미치는 상황적 요인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낳게 한 내적 원인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Choi, Nisbett, 그리고 Norenzayan(1999)의 연구 또한 자신의 정서 상태로 행위를 설명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도덕

성을 판단할 때도 정서가 같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Trafimow 등 (2002)의 연구는 행위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실험참가자들이 상황적 압력보다는 개인의 관심사와 같은 행위자의 동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Woolfolk, R. L., Doris, J. M., 그리고 Darley, J. M Rober L. (2005)의 연구는 살인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 이외의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한 상황적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살인을 하는 것을 원했을수록 관찰자가 행위자에게 책임을 더 많이 두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행위의 의도성에 대한 판단은 행위 자체의 좋고 나쁨에 대한 그들의 도덕적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도 있었다(Knobe, 2003).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모두 상황의 압력과 제한보다는 행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두었고, 행위 자체에 대한 도덕적 신념과 관련이 있었다. 판단 연구에서 사용된 상황적 압력이나 외부적인 요인은 대부분 인지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정서적인 요소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덕적 판단 연구에서도 판단자의 정서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미치는 영향과 도덕을 위반할 때 느끼는 정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과 주제로 연구되어 왔지만 행위자의 정서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도덕적 판단이 이성에 의한 도덕적 추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연구모델의 대안적 모델로서 도덕적 정서와 직관이 직접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사회 직관적 모델(Haidt, 2001)의 등장은 도덕적 판단에서 정서의 중요성이 인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는 협

상 심리학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 장면에서 상대방이 화나 났는지, 행복한지의 정서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협상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는 도덕적 판단과 평가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협상의 범위는 단순히 경제적인 협상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날 때 누가 먼저,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그리고 2인용 좌석에 앉았을 때 누가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가와 같은, 보이지 않는 사소한 문제에서 무언중에 협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Kelley, 1968). 따라서 협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인간의 협상뿐만 아니라 판단자와 행위자 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개인 내부에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를 무의식적으로든지 의식적으로든지 결정해야 한다. 이는 판단자와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윤리의식이나 인간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도덕적 판단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들 영역에 따른 강도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각 문화권마다 사람에 대한 기준과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에 대한 가르침과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평가의 기준이 된다. 한국인은 대인관계 윤리를 절대적인 도덕영역으로 여기며 사람판단의 기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러 도덕적 판단 영역에서 대인관계 윤리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검증하고 그것의 심리적 강도를 행위자의 ‘화’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판단 시 행위자의 ‘화’가 사건 판단이나 행위자 평가 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해보기로 하였다. 기존 협상 연구를 토대로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요구를 줄이고 양보를 더 많이 하여 도덕적 기준의 적용을 관대하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사건 판단과 행위자 평가를 관대하게 하고 도덕적 정서인 판단자의 화를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피험자 간 설계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화’의 영향이 도덕적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Turiel 등(1983)과 송명자(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3가지 영역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피험자 내 설계를 하였다. 대인관계 윤리 위반 시나리오는 살인이나 교통법규 위반 시나리오 같은 법적 처벌은 없지만 한국인에게 이것에 대한 강력한 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비난의 정도가 보다 강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행위자의 ‘화’가 대인관계 윤리 위반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미비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화’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도덕적 영역의 문화적 강도 확인뿐 아니라 나아가 행위자 정서가 도덕적 판단 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해 줄 것이다.

도덕적 판단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

1960년 소위 ‘인지혁명’이 있기 전에는 심리학계에서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는 않았다. 프로이드는 사람들의 판단은 무의식적 동기와 감정에서 나오며 그 후에 받아드려질 만한 이유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또한 행동주의자들은 도덕적 추론을 도덕적 행동의 산물

로 보았고, 도덕성을 사회의 보상과 처벌로 야기된 행동으로 설명했다(Skinner, 1971). 그러나 인지혁명 이후 지금까지 대다수의 도덕적 연구는 이성주의 모델(Rationalist models)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성주의 모델은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추론에 의해 내려진다는 것이다. Haidt(2001)는 최근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이성주의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적 직관 모델(Social intuitionist model)을 대안적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직관 모델은 개인에 의한 추론의 중요성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사회문화, 진화, 생물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류학과 동물학의 연구 결과들은 이 모델이 이성주의 모델 보다 일관성 있게 도덕적 판단을 설명해 준다고 보고하였다. 도덕적 판단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도덕적 판단의 정의와 도덕적 추론 그리고 직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철학자들은 다른 종류의 판단, 예를 들어 개인적 선호나 심미적인 판단 그리고 개인 능력에 대한 판단 등에서 도덕적 판단을 분리해 내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평가(assessment)는 우선 특별한 문화적 관습과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을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하부집합으로서 특정 사회적 범주의 사람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나 기혼 여성과 같은 사회구성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미덕이나 덕목이 반영되는 평가도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미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공정성’, ‘정직’ 같은 것들도 있고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들도 있다. 사람들은 미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타인들도 미덕

을 지키길 기대한다. 사회적 미덕이나 덕목들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비판받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Shweder & Haidt, 1993 등). 따라서 도덕적 판단의 정의는 문화와 사회에 의해 의무화된 미덕이 반영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여전히 도덕적 판단의 가장자리에 의도적으로 회색영역을 남기고 있다. 예를 들어 ‘저지방 음식을 먹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덕적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겠지만, 건강에 민감한 문화에서는 치즈버거와 밀크셰이크를 먹는 것이 도덕적으로 미성숙해 보일 수 있다(Stein & Nemeroff, 1995). 이것은 도덕적 판단의 경계가 문화의 다양성만큼이나 상대적임을 입증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도덕적 판단의 충분조건이나 특징, 다시 말해 전형적인 정의를 찾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행동적인 사실에서 출발하는 경험적인 접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이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내려진다. 그들은 매일 가설을 형성하고 검증하는 것을 배우며 사회의 작동 모델을 세우고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이러한 가설과 모델을 고려한다(Turiel, 1983). 도덕적 판단은 여러 단계의 추론을 통해 나오며 사람들은 관련된 증거를 찾고 어떤 증거에 비중을 둘지 결정하고 이론과 증거를 조합하여 결정을 내린다(Kuhn, 1989; Nisbett & Ross, 1980). 이러한 단계 중 어느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추론 과정에서 편견과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추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Galotti, 1989). Galotti(1989)는 도덕적 추론이란 도덕적 판단을 하기 위해 주어진 정보를 변형

하는 의식적인 정신 활동이라고 정의 내렸다. 도덕적 추론이 의식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노력을 필요로 하고, 통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론 과정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argh, 1994).

반면에 도덕적 직관이란, 도덕적 추론과 달리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Simon, 1992 등). Bruner(1960)는 직관은 문제에 대한 내재적인 인식이 동반된다고 말한다. 도덕적 직관이 도덕적 추론의 대안적 가설로 등장했기 때문에 직관과 추론의 대조를 정서와 인지의 대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서를 포함한 직관과 추론은 모두 다 인지의 형태이다(Lazarus, 1991).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관은 빠르게,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추론은 더 느리고 노력을 필요로 하며 적어도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덕적 직관이란 감정의 유발(좋음-싫음 등)을 포함하여 도덕적 판단의 갑작스런 출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적 직관은 심리학적 과정이며 미학적인 판단과 유사하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들으면 바로 그 사건에 대해 찬성할지 반대할지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직관은 이성주의 모델에서는 직접적인 도덕적 판단에 원인이 되지 않았지만 직관적 접근에서는 도덕적 정서를 포함한 도덕적 직관이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Wilson, 1993 등).

도덕적 판단 연구의 주를 이루었던 이성주의 모델은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판단은 추론과 반영에 의해 결정되고 (Kohlberg, 1969; Piaget, 1932/1963; Turiel, 1983) 공감같은 도덕적 정서는 때때로 추론 과정에 영향을 줄뿐 직접적인 도덕적 판단에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고 보았다. 그러나 Haidts는 최근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적 추론이 도덕적 판단을 야기 하지 않는다는 4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2가지 인지 과정인 추론과 직관에서 추론과정만이 너무 과장되며, 이것은 종종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추론과정은 사후에 정당화되고,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추론보다 도덕적 정서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도덕 심리학에 확정된 사실이 아닌 대안적인 모델로서 사회적 직관 모델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직관 모델에서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 사회적 직관 모델은 사람들이 도덕적 진실을 알아챘을 때 이성적 과정이나 반영 없이 진실을 인식한다고 말한다(Harrison, 1967, p72). 또한 사회적 직관 모델은 도덕적 판단이 대인 관계 과정에서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도덕적 판단에 대한 모델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 발달에 대한 연구도 오랫동안 인지발달의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 Turiel 등(1991)은 문화적 보편성을 전제로 하는 Kohlberg의 도덕 판단 인지발달 이론과 문화적 특수성을 강력히 주장한 문화전수 이론의 양극적 입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영역구분모형을 도입하였다. 영역 구분모형은 도덕적, 사회 인습적, 개인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데 첫째 도덕적 영역은 생명의 가치, 정의, 인간고유의 권리와 존엄성, 신뢰, 책임감, 분배의 공정성 등과 같이 시대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보다 내재적인 도덕적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반해 사회 인습적 영역(social-conventional domain)은 음식, 의복, 인사, 관혼상제의 예법, 성 역할 등과 같이 사

회적 상호작용을 조화시켜 주기 위한 성원들의 일종의 상호합의이며 일단 인습적 규범으로 규정되면 그 성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및 행동적 제약을 가하게 된다. 즉 도덕적 영역에 비해 사회 인습적 영역은 보다 임의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문화적 특수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영역은 개인 특유의 문제로 지각되는 일련의 행동이나 사건을 포함하며 개인적 영역의 구분은 자아를 확립하고 자율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나 때로 사회 인습적 규제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Nucci, 1981; Semetana, 1983 등). 영역 구분 모형의 타당화 검증은 미국 내 뿐 아니라 여러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루어 졌으며 이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연구결과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나 또는 전면적으로 영역구분의 모호성도 보고되었다(송명자, 1991 등). 게다가 일부 문화권간 비교연구는 문화권 간의 영역의 차이를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에게는 인습적인 영역의 사건이, 인도인들에게는 어떤 도덕률보다 더욱 강력한 도덕적 영역의 사건으로 개념화되어 있었다(Shweder 등, 1987). 4개의 도덕적 사건과 4개의 인습적 사건을 제시하여 유치원, 초, 중 고 학생에게 준거판단과 그 이유를 물어본 연구(송명자 등, 1987)에서 한국 아동은 서양 아동과 달리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관습이나 규칙에 의한 제재 여부를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나쁜 것으로 믿고 있었다. 준거 판단에 대한 타당화 범주에서도 미국 아동은 주로 인습적 일탈 행동이 나쁜 이유를 이러한 행동에 뒤따르는 사회적 규제나 처벌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아동은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적합한 역할과 상호 간의 예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화

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검증을 통해 밝혀진 도덕적 개념에 대한 문화권간 차이는 도덕적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을 위협하는 것이다. Shweder (1990)는 도덕적 개념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문화권간 차이를 모든 문화권이 공유하는 보편적 도덕성과 문화권에 따라 상이한 맥락 의존적 도덕성으로 구분되는 도덕적 개념의 이질성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의 도덕적 판단

각 문화권마다 사람에 대한 기준과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전통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성적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인데 이는 이성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Barresi, 1999; Burr, 2002; Taylor, 1998). 이러한 사람됨의 가정은 계몽주의 이후 개인주의로 발전되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였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 반면에 유교문화권에서는 대인관계 윤리를 지키는 것이 주요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이승환, 1998; 조궁호, 1998, 2003; 최상진, 2002)

한국 문화에서는 ‘사람’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의 차원으로 도덕성과 능력을 판단 준거로 보고 있다(한규석 등, 2004). 여기서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대인 관계적 측면과 삶의 자세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보다 도덕성을 중요한 사람판단의 준거로 보았다.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도리는 도덕적 인격과 연계되는 규범으로 보았고, 사람들은 도덕적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

을 ‘좋은 사람’ 혹은 ‘괜찮은 놈’ 이라 부른다(최상진, 2000). 한국인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윤리 규범을 지킬 때, 예를 들어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는 행위가 곧 도덕적 인격과 연계되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곧 도덕적 인격과 연계되는 행위의 도덕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예를 못 갖추거나 의를 행하지 않거나 염치가 없는 행위를 했을 때 사람답지 못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최상진, 2000). 그리고 관찰자는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비난이나 힐난을 하게 되고 이는 관찰자의 화를 촉발하게 된다(Harre & Gillett, 1994). 따라서 사람들은 사회구성원들의 기대와 가치 및 규범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서양에서는 사회 인습적 영역 중 대인관계의 예절이 대인관계 윤리를 중요한 사람 판단의 준거로 보는 한국인들에게는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로 내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송명자, 1991).

한국인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람의 됴됨이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도 있을 것이다.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은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 여기고 집단의 결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집단에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 것이다(T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icca, 1998).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 중 하나인 ‘인정’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도덕적 판단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인은 자신과 타인을 하나의 단위, 즉 ‘우리’로 지각하며 이와 같은 관계에서는 이해 타산과 같은 교환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고 이

타성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이타적 관심은 한국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정’이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구조의 하나로 볼 수 있다(김재은, 1987; 윤태림, 1970; 차재호, 1980; 이규태, 1994). 여기서 ‘인정’은 대인관계 윤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대인관계에 따라 인정을 베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정은 유교적 전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인정이 법치에 우선하였다. 예를 들어 인조 24년에 아버지의 절도죄를 고발한 딸을 사형에 처해 그 목을 시장에 걸어 효수까지 하는 극형을 가했던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법을 지키기 위해 인정을 침해하는 한 것은 고존장론(告尊長論)이라 하여 엄하게 금했던 것이다. 법치보다 인정을 우선시킨 위의 사건은 한국 특유의 사상적 배경의 필연이며, 인정지상주의의 단적인 표현이었다(이규태, 1994).

그러나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의 가치규범의 유입으로 오늘날 한국사회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나은영 · 차재호, 1999; 이종한, 2000; 한규석 · 신수진, 1999; 한성열 · 안창일, 1990).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인간관계는 교환적인 성격을 띠며 공정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규범이 된다. 이러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가 한국사회에 공존하게 되면서 이중 규범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중 규범은 상황에 따라 규범의 선택과 적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행동하기 용이해 지고 자신의 의사대로 규범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정을 사용하여 판단을 내릴 때와 공정을 사용하여 판단을 내릴 때가 상이할 수 있다는 말이

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인은 ‘우리’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정해놓은 범위에 따라 각기 다른 도덕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발생한 사건의 심각성과 원인 그리고 대상에 따라 ‘죄지어도 용서하는 인정’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사건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소위 ‘공정’이 우선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인들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행위자의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거나, 행위의 의도성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는 ‘인정’을 베풀 가능성이 있겠다. 『위지동이전』에 표현된 ‘술로 인한 술주정을 부리거나 술이 과하여 서로 싸움을 하다가도 다음 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이좋게 지낸다.’는 내용은 서로를 질타하고 따지기는 응징의 문화보다는 관대하게 넘어가는 융합의 문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박재환,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술’과 같이 ‘화’가 판단을 관대하게 하는지 알아보고, 여러 도덕적 판단 영역에서 대인관계 윤리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검증하고 그것의 심리적 강도를 실험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도덕성 연구의 초점이 도덕성의 정서적 토대에 관한 것들인 만큼 본 연구에서도 도덕적 판단과 정서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도덕적 판단과 정서의 관계

도덕적 정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접근방법은 우선 도덕성을 정의하고 도덕성을 위반할 때 동반되는 정서가 도덕적 정서라는 것이다. 다른 측면의 접근은 도덕적 정서를 사회전체나 단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복리와 연관된 정서라고 본다.

도덕적 정서의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려움이나 행복과 같은 정서는 나에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다. 또한 나와 관련된 친구에게 일어난 일에도 같은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서는 나와 상관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리고 자주 유발되기도 한다. 우리는 불공정한 일이나 무고한 아이가 고통 받는 것을 본다면 화가 나거나 연민을 느낀다. 즉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나 사람에서도 잘 유발되는 정서일 수록 도덕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서의 사회적인 행동 경향성이다. 정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에 반응하는 행동을 동기화 한다. 다시 말해 정서는 목적이 있는 행동(보복, 제후, 위안)을 하도록 사람을 동기화시키고 특정한 인지적 상태를 만든다. 이러한 행동 경향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질서에 이로울수록 도덕적 정서라 할 수 있다(Haidt, 2005).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질서를 이롭게 하는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정서가 바로 도덕적 정서이다.

도덕적 정서는 크게 두 가지 정서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멸’, ‘화’, 그리고 ‘혐오스러움’과 같은 타인 비판적인 정서군과 자의식적 정서인 ‘부끄러움’, ‘죄책감’, ‘당황함’ 같은 정서군이다. 자의식적 정서연구의 경우 한국인들은 대인관계 윤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혹은 상대방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사회적으로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의식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김기범, 2004 등). 도덕적 판단에 유발되는 도덕적 정서의 검증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서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타인 비판적인 정서인 혐오감이 도덕적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는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직관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직관 모델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었다(Wheatley & Haidt, 2005). 정서는 사람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도덕적 특성을 구별하고, 도덕적 행위를 동기화 하며 비도덕적 행동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도덕적 규범이 심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도덕규범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 도덕적 추론 등이 아니라 도덕적 정서라 할 수 있다(Montada,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람들의 도덕적 규범의 작동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도덕적 가치를 위배하는 사람을 보고 느끼는 판단자의 ‘화’를 측정하였다.

화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적 상태를 지칭하고 화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과적 맥락이 있다(최상진, 2000). 한국 문화에서 이러한 인과적 맥락은 좌절경험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신이나 집단의 성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 받았을 때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화를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잘못된 것에 대한 판단과 사람의 도리 등의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이다(최상진, 2000; Harre & Gillett, 1994).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는 서구 문화권에서 개인의 권리나 자유 등이 침해받을 때 나타나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위계질서나 예등을 위반했을 때 분노나 화의 도덕적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김기범 등, 2005; Rozin 등, 1999). 이와 같은 전제는 각 문화권의 인간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 타인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수반된 화 관련 정서 표현의 형태는 ‘나쁜’, ‘못된’, ‘짐승만도 못한’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평

가적 정서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준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화’는 평가적 정서표현으로 판단자의 내재적 준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리적 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의 평가적 기능을 이용하여 판단자의 내재적 기준의 강도를 측정할 것이다. 기준이 높은 절대적인 영역일수록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고 ‘화’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에 따라 ‘화’에 대한 이유와 방식이 다르듯이 ‘화’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도 문화에 따라 다르다. 서양인이나 일본인에게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은 합리적 행동이 아닌 것으로 부정시 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인에게서는 화는 잘 표출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화가 잘 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화를 내는 일이 잘 받아들여지고 발달하게 된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최상진&이요행, 1995). 이는 한국인이 화의 표출에 관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도덕적 판단에 관한 연구는 판단자의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나 행위자가 위반 행동을 한 후에 생기는 정서에 대한 연구만 있었을 뿐 행위자의 정서 상태정보인 ‘화’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도덕적 정서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다양한 도덕적 판단 상황을 설정하여 각각의 도덕적 규범에 대한 판단자의 내재적 기준을 확인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화’가 부정시 되지 않는 다하더라도 내재적 기준이 높은 영역에서는 그에 따른 판단이 차이가 없을 수 있는 반면에 내재적 기준이 낮은 영역에서는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 판단에 대한 연구는 크게 도덕적 판단발달에 대한 이론 연구와 연구 모델, 그리고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변인, 특별히 도덕적 정서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도덕적 판단 모델 이론에 대한 논쟁과 문화에 따른 도덕적 개념의 이질성과 문화 간 도덕적 판단의 차이는 지금까지 논의의 거둬두고 있는 연구주제이다. 또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판단자의 정서가 미치는 영향과 도덕을 위반할 때 느끼는 정서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다양한 방법과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Nichols, 2002). 그러나 행위자의 정서 상태 정보가 평가자의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도덕적 평가나 판단에 행위자의 ‘화’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문화에서의 다양한 도덕적 영역을 설정하여 각 영역의 심리적 강도를 행위자의 화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덕적 영역은 ‘생명존중’과 같이 보편적인 도덕영역과 서구에서는 사회 인습적인 영역이지만 한국에서는 절대적인 도덕영역인 대인 관계적 윤리 영역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으로 규제력이 있는 교통법규를 다루기로 하였다(Shweder, 1990; 송명자, 1992). 왜냐하면 대인 관계적 윤리 영역은 보편적인 도덕영역처럼 강력한 법 규제나 처벌이 없지만 내재적 혹은 문화적 강제력이 엄격할 것이다. 따라서 ‘화’가 나서 한 행위라 할지라도 강한 법적 처벌이 있는 영역과 마찬가지로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인의 ‘화’는 심정의 전달로 이용되면 한국인의 대인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변수이다(최상진 등, 1995). 최근 협상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방의 정서에 대한 정보에 따라 협상전략이 달라짐을 검증하였는데 화가 난 상대방에게 정서 상태를 알 수 없는 상대방보다 요구를 적제 하고 양보를 더 많이 하였다(VanKleef, De Dreu & Manstead, 2004). 타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정서 정보의 유무는 다른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한국인에게 있어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은 필수이며 행위를 한 상대의 마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인에게 화가 나는 심정뿐 아니라 화를 내는 심정 그리고 화를 읽는 심정이 행위자채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서양인에 비해 월등히 발달해 있다(최상진 등, 1995). 그러나 행동의 도덕적 영역에 따라 ‘화’를 읽는 심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가치만큼 사회나 문화에서 중시하는 다른 도덕적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인 관계적 윤리를 지키는 것을 사람의 도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동의 평가는 다른 영역보다 엄격할 것이다. 대인 관계적 윤리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효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며, 만약 인간의 도리인 효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금수(禽獸)만도 못한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게 되는 강력한 도덕 윤리이었다. 비록 현대로 오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되었다고 하나 과거와 같지는 않을 지라고 그 정신만은 전통적인 효의식과 다르지 않다는 연구결과로 봤을 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는 다른 대인관계 윤리보다 심리적 강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행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서 다른 대인관계 윤리 영역과 비교했을 때 화(火)란 정서 정보로 인한 판단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대인 관계적 윤리는 법적 제재는 없지만 오랜 문화의 묵시적인 가치가 개입되므로 심리적 강도가 높아 부정적 정서와의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교통법규 같은 사회적 약속은 법적 강제성을 띤 것이지만 법적 처벌이 살인에 비해 가볍고 심리적 강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화’가 행위나 행위자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할 것이다. 도덕 영역 중 가장 강력한 법적 강제성과 위반 시 강도 높은 처벌이 있는 생명 존중은 인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가 가장 극단적일 것이다. 그러나 화(火)에 한 살인이라는 정보는 사건의 우발성을 높이고 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쳐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가 다양한 도덕적 영역에서의 일탈 행동 판단과 사람 평가 그리고 판단자의 정서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 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도덕적 정서인 ‘화’와 어떤 상관을 갖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1. 행위자의 화가 사건의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1-1.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로 하여금 사건의 도덕적 허용성과 도덕적 일반성을 높게 평가하게 할 것이다.

연구문제 1-2. 법적규제가 없지만 사회문화적 규제가 강한 영역인 대인관계 윤리 위반에서는 행위자의 화가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행위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연구문제 2-1. 행위자의 화는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감소시킬 것이다.

연구문제 2-2. 행위자의 화는 행위자 처벌에 대한 평가를 감소시킬 것이다.

연구문제 2-3. 대인 관계적 윤리 위반의 경우 행위자의 화는 행위자 비난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연구 문제 3. 화가 판단자의 공감과 행위자에 대한 판단자의 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1. 행위자의 화는 모든 도덕적 영역에서 판단자의 공감을 높일 것이다.

연구문제 3-2.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의 행위자에 대한 화를 감소시킬 것이다.

연구 문제 4. 행위자의 화와 판단자의 행위자에 대한 화의 상관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1.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의 행위자의 대한 화와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에 강북에 소재하는 모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분석 대상은 179명으로 남학생은 81명, 여학생은 99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1.35세이었다.

측정 도구

다양한 도덕적 영역에서 ‘화’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정서 처리는 피험자 간 변인으로 다양한 도덕적 영역은 피험자 내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도덕적 영역은 Turiel 등(1983)과 송명자(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영역을 선정하였다.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적 보편성을 지닌 영역과 사회 성원들의 상호합의에 의해 규정적 행동 규범인 사회인습적 영역으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송명자(1993)의 연구는 한국인들이 인습적 개념을 절대적 도덕화하는 경향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사회인습적 영역을 문화적 특수성이 강한 대인관계 윤리와 교통법규로 구분하였다. 도덕적 영역 중 개인적 영역의 경우는 개인의 경험 차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통제집단은 단순 사건내용만을 읽고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고 실험집단은 화가 난 행위자가 들어간 동일한 사건내용을 읽고 통제집단과 같은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두 집단의 피험자는 보편적 도덕에 관련된 시나리오 2개, 대인관계 윤리 시나리오 2개, 교통법규 관련 시나리오 2개, 총 6개의 시나리오를 읽고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통제집단 VS 실험집단) × 6(도덕적 영역) 혼합 설계이며 측정도구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 보도와 기존 연구 시나리오(김시업·김기범, 2003; 송명자, 1993)를 바탕으로 도덕적 영역별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절대 보편적인 도덕 위반으로는 ‘살인’을 선택하였다. 가족 내 살인과 타인 살해에 대한 가해자 비난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유지현, 2004)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 타인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대인관계 윤리 위반은 ‘어른에게 자리양보 안하기’와 ‘부모에게 욕하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이 영역 역시 부모와 타인으로 대상이 구분된다. 교통법규 위반은 허태균(2004)연구에 사용된 시나리오를 변형하여 가벼운 신호위반 상황과 그보다 법규 위반 인식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음주운전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영역의 시나리오를 통해 ‘화’가 판단 시에 미치는 영향의 일반성을 확인하고 각 영역의 심리적 강도를 검증하였다. 시나리오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A1-B1-C1-C2-B2-A2 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제 조건-부모 살인>

여관 투숙객을 살해한 50 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 모씨는 그제 정오쯤 같은 여관에 살던 이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험 조건- 부모 살인>

황김에 여관 투숙객을 살해한 50 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 모씨는 그제 정오쯤 같은 여관에 살던 이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모씨가 자기 부모를 무시하며 욕을 하자 화가나 흥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역구분모형의 검증을 위해 Turiel 등(1983)이 사용한 기준 중 비허용성(nonpermissibility)과 일반성(generalization)을 사용하였다. 비허용성은 도덕관련 행동에서의 일탈행동이 본질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심각성의 정도를 말한다. 영역구분모형에서는 개인적 영

역보다는 사회인습적 영역이 사회인습적 영역보다는 도덕적 영역의 일탈행동이 더욱 나쁜 것으로 판단되었다(Smetana, 1984; Song, 1987). 일탈행동의 허용 정도를 7점 척도(1= 전혀 허용될 수 없다, 7= 매우 허용될 수 있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일반성은 행동에 대한 판단이 시대, 사회가 변한다면, 판단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의 묻는 시대사회적 보편성의 준거 판단 진단을 위한 것이다. 이 문항 또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7점 척도(1= 전혀 차이가 없다, 7= 매우 차이가 있다)로 물어보았다.

규범 일탈이나 위반행동을 한 사람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보기 위해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는 문항에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행위자 처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벌을 받아야 한다’ 는 문항에 7점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비난 정도를 알아보았다. 위의 2문항은 도덕적 판단의 문화차이를 비교한 Haidt 등(1993)의 연구와 범죄 행위의 원인에 대한 귀인과 도덕적 판단을 연구한 Pizzaro 등(2003)이 사용한 문항을 각각 1개씩 번역하여 사용한 것이다.

실험 집단 간 처치를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가 시나리오 상의 주인공의 ‘화남’ 정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한기연(1993)의 형용사 평정 척도에 시나리오 상의 주인공의 당시 심정을 추측하여 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주인공의 심정에 공감하는 정도를 7점 척도(1=전혀 공감할 수 없음, 7= 아주 강하게 공감)로 답하게 하였다.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정서(화)와 상관을 갖는지 알아보고 판단자의 정서(화)가 평가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Mullen 등 (2006)

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를 보고 시나리오 대상에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7점 척도(1=전혀 화나지 않는다. 7= 매우 화가 난다)로 물어보았다.

결 과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처치 검증을 위해 시나리오 상황에서 주인공이 느꼈을 화남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시나리오 영역 설정을 확인하고자 일원 피험자 내 변량을 실시하였다. 또한 2(실험집단 VS 통제집단) × 6(도덕적 영역: 타인살해, 부모살해, 어른에게 자리 양보 안하기, 부모에게 욕하기, 음주운전, 도로 무단횡단) 혼합 설계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각 문항에 따라 행위자의 화가 도덕적 판단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상의 행위자의 ‘화’ 와 판단자의 행위자에 대한 화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실험 처치 검증 및 도덕적 영역 간 차이

부정적 정서제시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시나리오 집단 간 처치를 검증하고자 두 집단에서 행위자가 느꼈을 ‘화남’의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실험처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시나리오 상황 시 행위자의 ‘화남’ 정도를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제시에 따른 집단 간 처치를 검증

표 1.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 행위자의 화남 정도 인식 차이 검증

		피험자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부모살해	실험 집단	96	4.22	.97	178	-2.64**
	통제 집단	84	3.77	1.29		
타인살해	실험 집단	96	4.53	.81	178	-5.68***
	통제 집단	84	3.71	1.12		
부모에게 욕함	실험 집단	96	4.46	.58	177	-4.04***
	통제 집단	84	4.05	.79		
자리 양보안함	실험 집단	96	4.02	.89	177	-13.91***
	통제 집단	84	2.04	1.01		
음주운전	실험 집단	96	3.76	1.06	176	-13.99***
	통제 집단	84	1.73	.84		
무단횡단	실험 집단	96	4.19	.83	177	-23.35***
	통제 집단	84	1.49	.70		

* $p < .05$, ** $p < .01$, *** $p < .001$

하였고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행위자의 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덕적 영역 간 차이 분석

다양한 도덕적 영역 간 시나리오 설정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 피험자 내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피험자내 요인은 3가지 도덕적 영역(살인-대인관계-교통법규)으로 이루어졌고 종

속 변인은 도덕적 판단을 묻는 도덕적 허용성, 일반성, 행위자 부정적 평가 및 처벌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인 4가지 모두에서 도덕적 영역의 효과는 유의미하였다(표 2 참조). 따라서 3가지 도덕적 영역별 시나리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험자들은 살인을 가장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가장 허용성이 높았다. 행동에 대한 판단이 시대, 사회가

표 2. 집단 내 도덕적 판단 차이 비교

	살인	대인관계	교통법규	F
허용성 (n=180)	1.64	3.23	3.43	229.76***
일반성 (n=178)	2.3	4.16	3.64	65.09***
부정적평가 (n=180)	5.79	4.67	4.10	157.76***
처벌 (n=179)	5.85	3.15	3.97	369.44***

* $p < .05$, ** $p < .01$, *** $p < .001$

변한다면, 판단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일반성에 대해서는 대인 관계적 윤리를 가장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살인은 가장 도덕적으로 문화나 사회, 시대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살인, 대인 관계적 윤리 위반, 교통법규 위반 순으로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행위자 처벌에 대한 평가에서는 살인, 교통법규 위반, 대인 관계적 윤리 위반 순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설정한 3가지 영역의 성격 차이를 확인해 주었다.

행위자의 화가 도덕적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화가 도덕적 허용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도덕적 영역에서 행위자의 화가 사건판단의 차이를 야기하는지 알아보고자 도덕적 허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행위자의 화를 높게 인식한 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그림 1 참조). 실시 결과,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무단횡단만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허용성의 평균값이 높아졌고 부모살해, 타인 살해, 음주운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89$, $p<.001$;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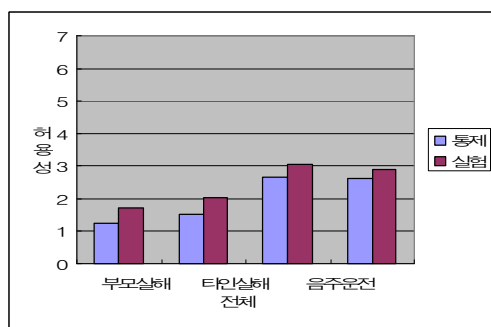


그림 1. 허용성 차이 비교

-2.77 , $p<.01$; $t=-2.11$, $p<.05$). 이와 같은 결과는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로 하여금 사건의 도덕적 허용성을 높게 평가하게 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가 행위자의 행동의 도덕적으로 허용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 윤리 영역인 자리양보와 부모에게 욕한 상황에서는 실험집단에서 평균값은 상승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행위자의 ‘화남’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욕을 하는 행동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법적 규제가 없지만 사회문화적 규제가 강한 영역은 행위자의 화에 따른 판단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무단횡단의 경우는 오히려 실험집단에서 평균값이 낮아졌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영역의 도덕적 허용성은 원래 매우 높기 때문에 행위자의 화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기각한다.

행위자의 화가 도덕적 일반성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화가 도덕성 일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자리 양보안하기와 무단횡단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시대나 사회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문항의 평균값이 높아졌다. 부모살해 행동에 대한 판단은 실험집단에서 통제집단보다 시대나 사회, 문화에 따라 차이가 더 있다고 답변했다($t=-2.79$, $p<.01$). 또한 타인 살해 행동에 대한 판단은 실험집단에서 통제집단보다 시대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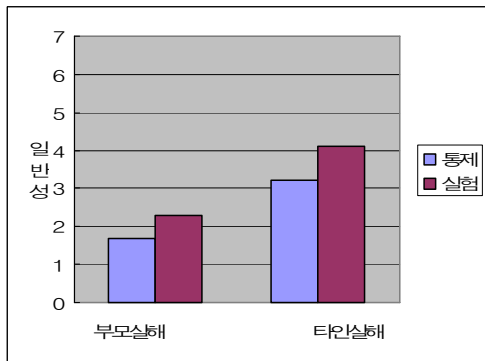


그림 2. 일반성 차이 비교

회,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t=-3.51, p<.001$).

부모살해와 타인살해에서만 행위자의 화가 도덕적 일반성을 높게 평가하게 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부모에게 욕한 행동과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법적규제가 없지만 사회문화적 규제가 강한 영역은 행위자의 화에 따른 판단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역시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단횡단의 경우는 도덕적 허용성과 마찬가지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어 가설이 기각되었다. ‘화’가 일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시나리오 전체의 일반성의 평균값을 구한 후 그것을 종속변인으로 집단 간의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행위자의 ‘화’는 시대, 사회에 따라 판단 내용에 차이가 있는 지를 물어본 일반성 판단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행위자의 화가 행위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화가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화’가 행위자 평가에 어떤 차이를 야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나리오 상의 행위자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그림 3 참조). 무단횡단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낮았다. 특히 부모살해, 타인살해, 음주운전에서는 유의미하게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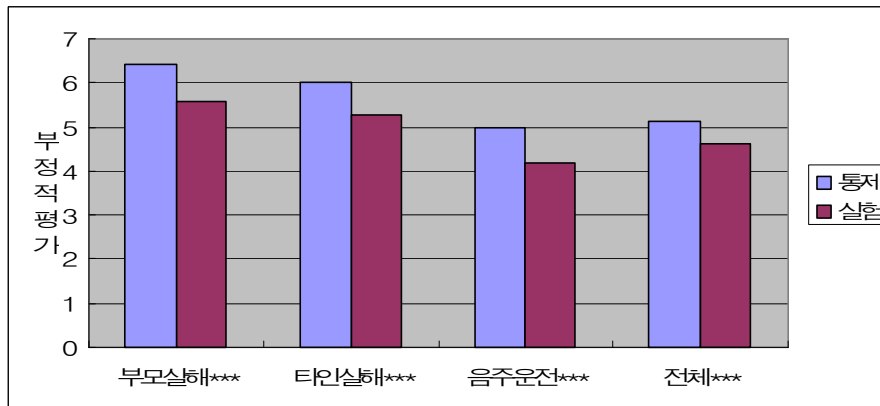


그림 3. 부정적 평가 차이 비교

(* $p<.05$, ** $p<.01$, *** $p<.001$)

평가의 차이를 보여주었다($t=3.69$, $p<.001$; $t=3.64$, $p<.001$; $t=3.89$, $p<.001$). 또한 ‘화’가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시나리오 전체의 부정적 평가의 평균값을 구한 후 종속변인으로 집단 간의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행위자의 화가 부정적 평가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t=3.96$,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행위자의 화가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감소시킬 것이라 가설을 지지해 준다. 또한 판단자로 하여금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행위자 평가를 보다 관대하게 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법적 처벌이 있는 교통법규보다 대인관계 윤리적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영역 간의 심리적 강도가 차이가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며 대인 관계적 윤리 위반의 경우 행위자의 화는 행위자 비난 정도를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라 가설 또한 지지해 주었다.

행위자의 화가 행위자 처벌 평가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화’가 행위자 처벌 평가에 어떤 차이를 야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나리오 상의 행위자 처벌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역시 무단횡단만 제외하고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행위자의 처벌정도 평가가 낮았다. 그러나 타인살해와 음주음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43$, $p<.001$; $t=2.16$, $p<.05$). 전체 처벌 평가의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는 행위자의 화가 도덕적 영역에 따라 처벌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t=2.43$, $p<.01$) 따라서 행위자의 화가 도덕적 영역에 따라 처벌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일부 지지해 준다. 같은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살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살인이 타인살인보다 심리적인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인의 대인 관계적 윤리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에서도 대상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 또한 대인관계 윤리 위반의 경우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그림 4 참조).

독립표본 t 검증 실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무단횡단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감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3.39$, $p<.01$; $t=-3.03$, $p<.01$; $t=-2.83$, $p<.01$; $t=-3.79$, $p<.001$; $t=-2.85$, $p<.01$; $t=-4.23$, $p<.001$). 따라서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의 공감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건과 대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서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로 하여금 관대한 평가를 내리도록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피해자의 화가 행위자에 대한 화 평가에 미치는 영향

판단자의 행위자에 대한 화 평가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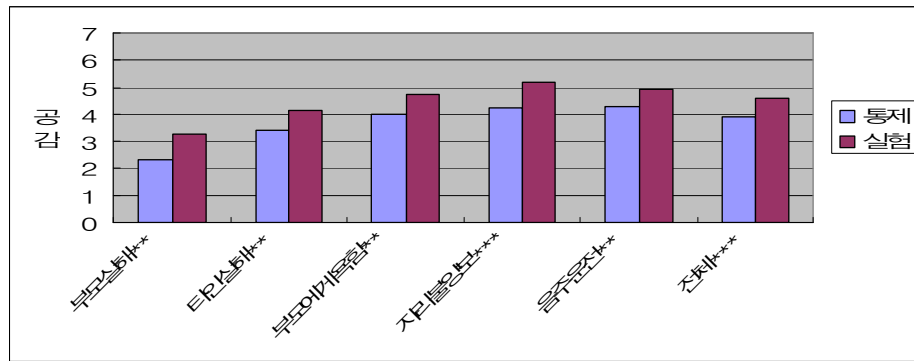


그림 4. 공감 차이 비교

다 모든 영역에서 평균값이 낮았다(그림 5 참조). 그리고 전체 평균값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의 행위자에 대한 화를 감소시켰다. 이는 사건과

대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서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로 하여금 관대한 평가를 내리도록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화가 나는 심정을 헤아린 것이다. 그

표 3.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 화 평가 차이 검증

		피험자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부모살해	실험 집단	96	5.17	1.74	177	3.06**
	통제 집단	84	5.93	1.60		
타인살해	실험 집단	96	4.22	1.58	175	2.47*
	통제 집단	84	4.80	1.59		
부모에게 욕함	실험 집단	96	4.52	1.58	174	.66
	통제 집단	84	4.68	1.61		
자리 양보안함	실험 집단	96	3.06	1.52	173	2.52*
	통제 집단	84	3.64	1.57		
음주운전	실험 집단	96	3.20	1.57	170	4.05***
	통제 집단	84	4.19	1.69		
무단횡단	실험 집단	96	2.79	1.44	151	1.17
	통제 집단	84	3.06	1.46		
전체	실험 집단	96	3.82	.98	178	3.92***
	통제 집단	84	4.43	1.07		

* $p < .05$, ** $p < .01$, *** $p < .001$

리나 부모에게 욕하는 행동과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지 않았다. 따라서 두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심정 혹은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위자의 화와 행위자에 대한 판단자의 화 평가 상관분석

모든 도덕적 영역에서 행위자의 화와 판단자의 대상에 대한 화 평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부모살해와 타인 살해, 부모에게 욕함 그리고 무단횡단의 화는 판단자의 대상에 대한 화 평가와 부적 상관이 존재하였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행위자와 음주운전자의 화는 판단자의 대상에 대한 화 평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행위자의 화와 판단자의 화 평가는 부적상관으로 가설(4-1)을 지지하였다. 특이한 점은 통제집단의 행위자의 화와 판단자의 화 평가 간 상관분석에서는 부모에게 욕을 한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의 대상에 대한 화 평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r=.335$, $n=84$, $p<.01$). 통제집단의 다른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모두 정적상관의 방향성을 보였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부모에게 욕을 한 행위가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다고 판단자가 인식할수록 대상에 대한 판단자의 화가 더 높아진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이전의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의 발생과 도덕적 판단 모델 연구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정서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다. 특별히 ‘화’가 행동을 설명하는데 빈번히 쓰이는 한국 문화에서 행위자의 화가 도덕적 판단과 행위자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상의 행위자의 화가 난 정도를 다르게 처리한 두 집단의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 행위자 평가 그리고 정서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행위자의 화가 사건 판단과 행위자 평가를 관대하게 하였고 행위자에 대한 화는 감소시켰다. 또한 행위자의 화를 많이 인지한 집단의 공감감이 더 높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대인관계적 윤리를 위반하는 상황제시에서는 화로 인한 판단이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에 강력한 법적 처벌과 대인관계적 윤리가 혼합되어 있는 ‘살인’의 경우는 행위자의 화로 인한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법적 처벌만이 있는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도 무단횡단을 제외하고 화로 인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위반해서는 안 되는 문화적 가치가 있고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는 범위, ‘화’의 표출을 용납하는 범위도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김기범(2005)의 연구와 동일하게 평가자가 도덕적 가치를 위반했을 때 도덕적 정서인 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반 행동 당시 행위자가 화가 나 있었다는 사실이 판단자의 화를 감소시키는 것을 밝혀냈다. 행위자의 화와 판단자의 화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행위자의 ‘화’를 제시한 실험 집단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부적상관을 보이고 통제집단에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통제집단에서 피험자는 부모에게 욕을 한 상황에서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분석

결과는 부모에게 욕을 한 행위가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다고 판단자가 인식할수록 대상에 대한 판단자의 화가 더 높아진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는 행위자의 ‘화’에 영향을 받지만 도덕적 영역에 따라 방향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화’가 판단 시 고려되는 여부도 즉 인정을 배풀만한 대상인가에 대한 판단도 문화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행위자의 정서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도덕적 연구에서 정서의 역할을 확대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심리학에서 판단과 의사결정에서의 정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Forgas, 1995 등). 그러나 도덕적 판단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 채, 이성적 고찰과 인지적 발달과 같은 인지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졌었다(Turiel & Neff, 2000). 도덕적 판단에 어떤 것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쟁에서도 판단자의 정서와 이성만이 고려될 뿐 행위자의 정서에 대한 연구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위자의 정서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도덕적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확대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도덕적 판단은 행위자와 판단자의 1:1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양식이 첨가된다. 도덕적 평가는 도덕적 판단 준거에 의해 활성화되고 도덕적 판단 준거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Shweder & Haidt, 1993). 사람됨,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과 ‘화’라는 한국인의 심정은 문화적 환경과 집단의 관습에 영향을 받고 있기에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문화에서는 대인관계 윤리를 지키는 것을 사람의

도리로 여기고 전통적인 효의 형식과 실천의 범위는 변했지만 여전히 효 의식에 대한 높은 가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효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일이나 그로 인한 행동이 오히려 부정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살인과 같은 더 중대한 범죄에서도 행위자의 ‘화’가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살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강력한 법적인 처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평가의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 자신의 평가가 법적인 처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갑자기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다는 정보는 살인의 의도성을 떨어뜨려 평가를 보다 관대하게 했을 수 있다. 반면에 부모에게 욕을 하는 행위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이 없고 단지 사람들의 가치기준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다. 게다가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위반행동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행위자의 ‘화’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음주운전과 도로 무단횡단은 교통법규라는 같은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음주운전 판단에 있어서는 ‘화’의 영향이 있었지만 무단횡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에 비해 무단횡단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아 ‘화’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행위자의 ‘화’에 대한 정보가 없이 단순히 사건만을 서술한 통제집단의 경우 영역별로 행위자의 화를 인식한 것의 차이가 있었다. 즉 살인과 부모에게 욕하는 상황의 경우 통제집단에서도 행위자가 화가 났을 것이라고 유추한 것이다. 물론 실험집단이 유의미하게 화를 더 많이 인

식했지만 기본적으로 살인이나 부모에게 욕하는 행동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화가 발생하는 이유와 표출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대안적 가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부당하게 상대방에서 피해를 입은 원인인지, 좌절경험을 했기 때문인지, 자신의 실수 때문인지 등과 같이 화가 발생한 이유에 따라 화를 표현하는 범위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화’가 상대방에 의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것인지 혹은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행위자가 화가 난 이유가 공감이 잘 될수록, 상대방이 행위자의 화를 돋웠을 때 도덕적 평가가 더 관대해 질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상황에서 화가 발생하는 이유와 대상을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서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단지 화만을 봤지만 다른 부정적 정서인 슬픔, 괴로움, 미움 등에서도 같은 효과가 생기는지 알아보지 못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후의 연구에서는 ‘화’와 다른 부정적 정서가 도덕적 판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화’가 ‘우리’와 ‘남’이라는 다른 판단 준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추후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도덕적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보다 잘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2002). 한국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35-55.
- 김기범, 김양하 (2004). 자의식적 정서로서 부끄러움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29-45.
- 김기범, 임효진 (2005). ‘사람됨’ 준거 위반과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火)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1-21.
- 김시업, 김기범 (2003).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 도덕적 self로서의 염치와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87-101.
- 김열규 (2004). 한국인의 화. 휴머니스트.
- 김재신, 한성열 (2004).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97-114
-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김태길 (1998). 공자사상과 현대사회.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박정열, 허태균, 최상진 (2001). 사회적 범주과정의 심리적 세분화: 내집단 속의 우리와 우리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1), 25-44
- 박재환 (1999). 술의 사회학: 음주공동체의 일상문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신수진, 최준식 (2002). 현재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 집문당.
- 송명자, 김상운 (1987). 아동의 도덕사태 판단에 있어서 사회인습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 초록, 140-149.
- 송명자 (1988).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문화적 특수성의 문제. 한림 정수봉총방 회갑기념논총, 227-241.
- 송명자, 설기문, 김상운 (1991a). 대학생의 도덕사태 개념화 및 그 변화양상의 범주별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135-144.
- 송명자, 조용하, 설기문, 김상운 (1991). 한국 대학생의 도덕사태 개념화 및 그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29(3), 189-206.
- 송명자 (1992). 도덕판단발달의 문화적 보편성: 영역구분모형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1), 65-80.
- 송명자 (1994). 한국 중고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성숙 진단 및 평가(1): 사회적 규범 및 책임판단 분석. 한국심리학회: 발달, 7(2), 53-73.
- 송명자, 안경식 (1997). 한국 청소년의 전통 규범 인식에 관한 연구 - 오류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35(3), 127-155.
- 이규태 (1994). 한국인의 정서구조 2. 신원문화사.
- 이수원 (1982). 태도 내 변산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101-123.
- 이수원 (1994). 사회적 자아중심성: 타인 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1), 129-152.
-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201-219.
- 조금호 (1998). 유학심리학. 서울: 나남.
- 조금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 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102-139.
- 조금호, 김지용, 홍미화, 김지현(2002). 문화성향과 공감 및 고독의 수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15-34.
- 조금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
- 차재호 (1980).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 문화의 연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사회과학협의회.
- 차재호 (1995). 협상의 심리학: 전반적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133-153.
- 최상진, 이요행 (1995). 한국인 화병의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327-338.
- 최상진 (1997a).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131-143.
- 최상진 (1997b).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pp.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 김기범 (1999b).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최상진, 윤호균, 한덕용, 조금호, 이수원 (1999).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도서출판 느티나무.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규석, 최송현, 정욱, 배재창 (2004). 한국사회에서의 사람 판단의 준거: 된 사람과 난 사람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23-39.
- 한성열 (1993).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한국인의 특성. 3, 45-59.
- 한성열, 안창일 (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형태와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16-128.
- 허태균, 황재원, 김재신 (2005)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준법의식의 약화에서 인지부조화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25-42.
- Allred, K. G., Mallozzi, J. S., Matsui, F., & Raia, C. P. (1997). The influence of anger and compassion on negotiation performa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0(3), 175-187.
- Anderson, C., Keltner, D., & John, O. P. (2003). Emotional convergence between people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54-1068.
- Bargh, J. (1994). The four horsemen of automaticity: Awareness, efficiency, intention, and control in social cognition. In : J.R.S. Wyer and T.K. Srull, Editor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2nd edition ed.), Erlbaum, Hillsdale, NY, 1-40.
- Baron, J. (1998). *Judgment misguided: Intuition and error in public decision making*,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Barresi, J. (1999). On becoming a person, *Philosophical Psychology*, 12(1), 79-98.
- Bruner J. S. (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Burr, V. (2002). *The person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Press.
- Camacho, C. J., Higgins, E. T., & Luger, L. (2003). Moral value transfer from regulatory fit: what feels right Is right and what feels wrong is wro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498-510.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1), 47-63.
- Cho, J. (2006). The mechanism of trust and distrust formation and their relational outcomes. *Journal of Retailing*, 82(1), 25-35.
- Colquitt, J. A., Scott, B. A., Judge, T. A., & Shaw, J. C. (2006). Justice and personality: Using integrative theories to derive moderators of justice effec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0(1), 110-127.
- Dasgupta & Greenwald,(2001). On the malleability of automatic attitudes: Combating automatic prejudice with images of admired and disliked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81, pp. 800 - 814.
- De Dreu, C. K. W. (2003). Time pressure and closing of the mind in negotiation.

-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1(2), 280-295.
- de Waal, F.(1996). *Good natured: The origins of right and wrong in humans and other anima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e Waal, F., & Lanting, F. (1997). *Bonobo: the forgotten ape*.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ndicott, L., Bock, T., & Narvaez, D. (2003). Moral reasoning, intercultural development, and multicultural experiences: Relations and cognitive underpinn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03-419.
- Forgas, 1995. J. P. Forgas (1995). Mood and judgment: The affect infusion model (AIM). *Psychological Bulletin*, 117, 39 - 66.
- Ferguson, N., & Cairns, E. (2002). The impact of political conflict on moral maturity: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25(5), 441-451.
- Galotti, K.M. (1989). Approaches to studying formal and everyday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5, 331-351.
- Gibbs, J. C.,& Basinger, K. S.,& Grime, R. L.(2003). Moral judgment maturity: from clinical to standard measure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2003).
- Gibbs, J. C. (2006). Should Kohlberg's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morality be replaced with a more pragmatic approach? Comment on Krebs and Denton. *Psychological Review*, 113(3), 666-671.
- Greene, J., & Haidt, J. (2002). How (and where) does moral judgment work?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6(12), 517-523.
- Haidt, J., Koller, S. H., & Dias, M. G. (1993). Affect, culture, and morality, or is it wrong to eat your do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613-628.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814-834.
- Haidt, J. (2003). The moral emotion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Oxford University Press, 852-870.
- Haidt, J. (2003). The Emotional Dog Does Learn New Tricks: A Reply to Pizarro and Bloom. *Psychological Review*, 110(1), 197-198.
- Haidt, J., Koller, S. H., & Dias, M. G. (1993). Affect, culture, and morality, or is it wrong to eat your do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613-628.
- Harre, R., & Gillett, G. (1994). *The discursive min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arrison, J. (1967). Ethical Objectivism. In: P. Edwards, Editor,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3-4, Macmillan, New York.
- Hoffman,(2000). M.L. Hoffman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England (2000).
- Hsee, C. K., & Hastie, R. (2006). Decision and experience: why don't we choose what makes us happ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0(1), 31-37.
- Hsee, C. K., & Rottenstreich, Y. (2004). Music, pandas, and muggers: On the affective

- psychology of valu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3(1), 23-30.
- Hsee, C. K., & Zhang, J. (2004). Distinction bias: misprediction and mischoice Due to Joint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5), 680-695.
- Jones, E. E., & Nisbett, R. E. (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ehavior. In: E.E. Jones, D.E. Kanouse, H.H. Kelley, R.E. Nisbett, S. Valins and B. Weiner, Editor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General Learning Press, Morristown, NJ.
- Kaiser, F. G., & Scheuthle, H. (2003). Two challenges to a moral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ral norms and just world beliefs in conservat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5), 1033-1048.
- Kelley, H.H. (1968). Interpersonal accommodation. *American Psychologist*, 23, 399-410.
- Knobe, J. (2004). Intention intentional action and moral considerations. *Analysis*, 64(282), 181-187.
-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A. Goslin, Editor,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Rand McNally, Chicago.
- Lazarus, R.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Lerner, J. S., & Keltner, D. (2000). Beyond valence: Toward a model of emotion-specific influences on judgement and choice. *Cognition and Emotion*, 14(4), 473-493.
- Lopes, P. N., Salovey, P., Cote., & Beers, M.(in press).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the quality of social interaction. *Emotion*.
- Markus, H.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Cullough, M. E., Kilpatrick, S.D., Emmons, R. A., & Larson, D. B. (2001). Is gratitude a moral affect? *Psychological Bulletin*, 127, 249-266.
- Michael I. Norton, B. M., Joel Cooper, Michael A. Hogg (2005). Vicarious dissonance: Attitude change from the inconsistency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1), 47-62.
- Miller, J. G., & Bersoff, D. M. (1998). The role of liking in perceptions of the moral responsibility to help: A 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5), 443-469.
- Montada, L. (1993). Understanding oughts by assessing moral reasoning or moral emotions. In G. G. Noam, & T. E. Wren (Eds.), *The moral self*.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ullen, E., & Skitka, L. J. (2006). Exploring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the moral mandate effect: Motivated reasoning, group differentiation, or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629-643.
- Nichols, S. (2002). Norms with feeling: Towards a psychological account of moral judgment. *Cognition*, 84(2), 221-236.
- Nichols, S., & Mallon, R. (2006). Moral dilemmas

- and moral rules. *Cognition*, 100(3), 530-542.
- Nisbetts, R.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ment*,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 Nucci, L.P. (1981). The development of personal concept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 114-121.
- Parrott, W. G. (2001). Implications of dysfunctional emotions for understanding how emotions func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3), 180-186.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M. Gabain, Trans.). New York: Fre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2).
- Pizarro, D. A., Uhlmann, E., & Salovey, P. (in press). Asymmetries in judgments of moral blame and praise: The role of perceived metadesires. *Psychological Science*.
- Pizarro, D. A (2000). Nothing more than feelings? The role of emotions in moral judgment.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30, 355 - 375.
- Pizarro, D. A., Uhlmann, E., & Bloom, P. (2003). Causal deviance and the attribution of moral respons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6), 653-660.
- Pizarro, D. A., & Bloom, P. (2003). The Intelligence of the moral intuitions: Comment on Haidt (2001). *Psychological Review*, 110(1), 193-196.
- Rozin, P., Lowery, L., Imada, S., & Haidt, J. (1999). The CAD triad hypothesis; A mapping between three moral emotions (contempt, anger, disgust) and three moral codes (community, autonomy, div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4), 574-586.
- Scherer, K. R. (1997). The role of culture in emotion-antecedent 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5-14.
- Schul, Y., Mayo, R., Burnstein, E., & Yahalom, N. How people cope with uncertainty due to chance or decep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In Press, Corrected Proof.
- Schwarz & Clore, 1983. N. Schwarz and G.L. Clore (1983). Mood, misattribution, and judg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13 - 523.
-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 (1999).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hweder, R. A. (1987). How to look at Medusa without turning to stone.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21: 37-55.
- Shweder, R. A., Mahapatra, M., & Miller, J. G. (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weder, R. A (1990). In defense of moral realism: Reply to Gabennesch. *Child Development*, 61, 2060-2067.
- Shweder, R. A., M. Mehapatra., & J.J, Miller. (1990).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Cultural Psychology*, edited by J. W. Stigler, R. A. Shweder, and G. Herd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 Haidt, J. (1993). The future of

- moral psychology: Truth, intuition, and the pluralist way. *Psychological Science* 4, 360-365.
- Simon, H. A. (1992). What is an "expla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3, pp. 150-161.
- Skinner, B. F. (1971). *Skinner Beyond freedom and dignity*, Knopf, New York.
- Smetana, J. G. (1983). Social-cognitive development: Domain distinctions and coordinations. *Developmental Review*, 3, 131-147.
- Stearns, P. (1995). Emotion. In R. Harre, & P. Stearns (Eds.), *Discursive psychology in practice*. London: Sage Publications.
- Stein, R., & Nemeroff, C. J. (1995). Moral overtones of food: Judgments of others based on what they ea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480-490.
- Stewart, N., Chater, N., & Brown, G. D. A. (2006). Decision by sampling. *Cognitive Psychology*, 53(1), 1-26.
- Taylor, S. E. (1998). The social being in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ition). Boston, MA: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Tiedens, L. Z., & Linton, S. (2001). Judgment under emotional certainty and uncertainty: The effects of specific emotions o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973-988.
- Turiel, E. (1978). Social regulations and domains of social concepts. In W. Damon(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1. *Social Cogni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45-74.
- Turiel, E. (1979). Distinct conceptual and development domain: Social-convention and morality.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Ne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England.
- Turiel, E (1989). Domain-specific social judgments and domain ambiguities. *Merrill Palmer Quarterly*, 35, 1, 89-130.
- Turiel & Neff, K. D (2000). Religion, culture, and beliefs about reality in moral reasoning. In: K.S. Rosengren, C.N. Johnson and P.L. Harris, Editors, *Imagining the impossible: Magical, scientific, and religious thinking in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269 - 304.
- T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 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Westview Press.
- Reeder, G. D., Kumar, S., Hesson-McInnis, M. S. and Trafimow, D.(2002). Inferences about the morality of an aggressor: The role of perceived mo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789-803.
- Van den Bos, K. (2003).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social justice: The role of affect as information in the psychology of justice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3), 482-498.
- Van Kleef, G. A., De Dreu, C. K. W., & Manstead, A. S. R. (2004). The

- Interpersonal effects of anger and happiness in negoti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1), 57-76.
- Van Kleef, G. A., De Dreu, C. K. W., & Manstead, A. S. R. (2004). The Interpersonal effects of emotions in negotiations: A motivated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4), 510-528.
- Vastfjall, D., & Garling, T. (2006). Preference for negative emotions. *Emotion*, 6(2), 326-329.
- Wheatley, T., & Haidt, J. (2005). Hypnotic disgust makes moral judgments more severe. *Psychological science*.
- Wilson, J. Q. (1993). *The moral sense*, Free Press, New York.
- Woolfolk, R. L., Doris, J. M., & Darley, J. M. (2006). Identification, situational constraint, and social cognition: Studies in the attribution of moral responsibility. *Cognition*, 100(2), 283-301.
-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1. 20
최종 원고 접수일 : 2008. 02. 17

The Influence of Anger on Moral judgment: With focus on college students

Jaee Cho

Seungyual Han

Korea University

Research on moral judgment has been dominated by rational factor or moral emotion, in which moral judgment is thought to be caused by moral reasoning or moral intuitions.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offender's anger can influence moral judgment. The study examined the role of offender's anger (control group versus anger group) on moral domain (life, interpersonal ethic, traffic regulation: 6 case) : 2(groups) × 6(cases) mixed design. Participants were asked to judge the offender, case, sympathy and one's anger about the him or her who offended against the law or convention. Participants who perceived the offender's anger tended to assess questionnaire generous. In interpersonal ethic domain, participants have not been affected by anger. Ther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interpersonal ethic domain. The results of experiment confirmed hypotheses that influence of anger varies with the moral domains affected a value system of culture. These findings indicate functional emotion for moral judgment and suggest people may be decide how much emotion is considered on moral judgment performance according to moral domains.

Key words : Moral judgment, Moral emotion, Anger